

논문 1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중3~고2 시기 지출에 대한 탐색 분석

강태중*

요약

이 논문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사교육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사교육비 지출이 평준화정책의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학생 개인 속성과 가정배경, 학교 소재지역 등을 통제하고, 평준화적용 지역과 비적용 지역 사이에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있는지 살피는 방법을 택하였다. 분석 결과는 평준화정책이 사교육을 억제하기보다 오히려 조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초기에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그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시사는 좀 더 충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평가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I. 머리말

이 논문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를 분석한다. 평준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진학에 관여하는 입학 정책이다. 입시제도가 사교육을 좌우한다는 통념을 받아들인다면, 평준화정책이 사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럽다. 특히 고등학교 입학에 앞둔 중학교 학생들의 사교육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학교의 속성(학생 구성, 교사들의 인식 등)을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런 예상을 실증적으로 점검한다.

우리 사회는 사교육비 문제를 교육 분야의 가장 심각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여긴다. 그리고 입시제도는 그 문제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본다. 이런 환경에서 입시제도가 사교육 행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악하려는 연구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듯하다. 그러나 그런 연구는 드물다. 김미숙 외(2006) 연구가 예외적으로 주목했을 뿐, 입시제도의 영향은 대체로 일

*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상적인 일화나 관찰들을 통해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를테면 2008학년도 대입제도에서 논술이나 내신이 관건이 된다고 알려졌을 때, ‘논술 광풍’이 불고 있다거나 과외가 주요 교과(국어, 영어 수학 등) 범위를 넘어 거의 모든 교과(예체능 교과)로 번지고 있다는 보도나 제보들이 나돈 정도이다. 이와 같은 예화들을 바탕으로 입시제도의 영향을 가설적으로 논의하는 데 그쳐왔다. 입시제도가 사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려 했던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입시제도와 사교육의 관계에 대해 당연히 관심을 가졌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살피는 연구가 부진했던 것은 아마도 데이터 문제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관계를 분석하려면 입시 제도의 흐름을 따라 사교육 행위 변화를 추적한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동안 이런 데이터는 확보할 수 없었다. 입시제도가 국가 수준에서 비교적 장기적인 주기로 바뀌는 우리나라 정책 환경에서, 그런 데이터는 입시제도 변화와 병행하는 종단적 사교육 조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게 우리 여건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는 2004년 중학교 3학년에서 출발하여 2006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까지 학생들의 사교육 행위를 추적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사교육 행위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는지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 연구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영향을 살피고 있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속성(현실)을 결정하고 있는 중요한 인자이다. 우리 교육에서 가능성을 보는 입장이건 한계를 보는 입장이건, 각자의 교육적 비전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평준화정책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루어야 할 사안이 된다. 평준화정책에 대하여 찬반으로 갈린 논쟁도 사실은 이 정책의 근본적 위상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핵심 요인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평준화정책에 대한 논의는 매우 편중되어 왔다. 논의는 주로 학업 성취도(수월성)나 대입전형(내신 반영 등의 문제)에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평준화정책이 학생들의 교육(학습)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거나 분석한 경우는 드물다. 그나마 유지된 정책이나 연구 관심도 고등학교 재학과 그 이후 과정에 쏠려 있어서, 중학교 학생들이 평준화정책에서 어떤 영향을 입는지 등에 관한 문제는 간과되어 왔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그 정책이 고등학교 입학에 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대상들보다도 사실은 중학교 학생들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한 중학생이 재학중인 학교가 평준화 전형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에 있는지 여부는 그(녀)의 진로(특히 고등학교 진학) 계획과 이 계획에 따르는 부수적 교육 행위에 직접적이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한다.

II. 선행 연구 검토

1.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대체로 세 가지 관심을 보여 왔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전체 규모를 추정하거나 그 규모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조사하는 것(한국교육개발원, 2003; 김미숙 외 2006), 사교육(즉, 비용 투자)이 실지로 학업 성취나 경쟁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낳는지 분석하는 것(이종태 외, 2002),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이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는 것 등이다. 이 연구가 잇는 흐름은 셋 가운데 마지막 관심이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는지 분석하려는 것이다.

사교육비 지출에 관련된 요인을 찾는 연구들은 주로 가계의 경영이나 소비에 관심을 두는 분야에서 이루어졌다(김인숙, 여정성, 1996; 유형선, 윤정혜, 1999; 박미희 여정성, 2000, 이성림, 2005 등). 이 연구들은 대체로 가계 지출에 관련될법한 가정 요인들이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지 살피고 있다. 이런 연구들이 거의 예외 없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사교육비 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가계 소득이나 자산, 주택의 소유 형태 등을 변인으로 잡아 사교육비 지출 규모 설명에 투입한 결과로, 그 변인들의 뚜렷한 설명력을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다른 가정 요인들도 검토하고 있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그런 변인으로 완전하게 치환되지 않을 변인들, 예컨대 부모의 학력 등도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녀의 연령과 수, 성별, 출생 순서 등이 사교육비 지출에 작용하는지도 분석하고 있다. 자녀에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자녀의 수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액을 높이는 경향이 있지만, 자녀 1인당 지출액은 오히려 줄이는 경향이 있다. 자녀의 성과 출생 순서의 영향은 연구에 따라 의의 있게 나타나기도 하고 미미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가정 요인과 무관하지 않으면서도 그 요인에 포괄할 수 없는 요인으로 사교육비 지출에 일관된 연관을 보이는 변인은 거주지역이다. 거주지역의 영향력은 국가 수준의 사교육비 규모를 조사하는 연구들에서도 지역별 지출액 평균의 차이로 시사되기도 하지만, 개인(가구) 수준의 연구(분석)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때 지역의 영향은 가정의 다른 요인들(가계 소득, 부모 학력 등)을 통제한 분석에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비슷한 가정환경이더라도 거주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때 지역은 대체로 도시화 정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데, 도시 지역이 시골 지역에 비하여 지출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지역의 영향을 좀 더 세밀하게 추론하려고 할 때 기존 연구들이 일관된 시사를 주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사교육비 규모의 지역별 차이를 보고하는 국가 수준의 조사 연구들은 광역시와 일반‘시’사이의 지출 차이가 항상 같

은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 지역의 도시화 정도 외에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같은 도시화 수준이라 하더라도 수도권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박기백, 1998; 이은우, 2004).

사교육비 지출에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학생 개인 요인들을 비교적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의외이다. 사교육비 투자가 학생 당사자들의 진로나 교육 계획, 학업 역량 등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탐색 연구에서 자연스러울 듯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가정 배경에 대해서 비교적 엄밀하게 변인들을 채택하고 있는 데 비하여, 학생 개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느슨한 변인들을 고려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학생의 성이나 출생 순위, 연령(학교급) 등을 고려하는 정도이다. 그들이 어떤 진로 계획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학력을 보이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검토의 필요성은 직관적으로 수긍할 수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도 시사되어 왔다(Becker and Tomes, 1986).

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사교육 추세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을 주제로 삼은 연구 가운데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영향을 다룬 것은 드물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 미칠 영향에 관련해서 부각되어 왔다. 많은 논자들이 실증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평준화정책의 영향을 분석하였다(강태중 성기선, 2001; 이주호 홍성창, 2001; 강태중, 2002; 이주호, 2002; 김기석 외, 2005; 강상진, 2005, 한국교육개발원, 2005). 대체로 평준화정책을 적용하는 지역과 적용하지 않는 지역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확인하려는 접근을 보였다. 학업 성취도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에 밀려 사교육비의 주제는 버금으로 밀린 셈이다.

선행 연구들이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사교육비의 관계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더라도, 그 정책이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은 기존 논의들로부터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닌다. 입시제도로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에 대한 자원 배분의 원칙으로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입시제도로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의 양상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경쟁의 강도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이 달라질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당초 정책 취지에서도 언급한대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대체로 고등학교 진학 경쟁을 완화할 것으로 여긴다. 다른 한편,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학교 운영에 관련된 다른 모든 조치에서 학교별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원칙을 함축하고 있다. 학생이나 교원 구성, 학교 물리적 환경 등에서 학교간에 차이가 없도록 만들려는 정책인 셈이다. 이런 정책을 추진한 결과는 학교별 학생 구성을 다양하게(이질적이게) 만들며, 학교별

자원 배분이 실적분위가 아닌 절대균분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만든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학교 운행과 분위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학생(가정)들의 사교육 수요에 작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할 때, 그 작용의 방향은 일방적이지 않다. 입시제도로써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진학 경쟁을 완화한다면, 이는 사교육 수요를 낮추는 효과를 낼 것이다. 특히 중학교 시기에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균등 배분의 원칙으로서 평준화정책이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사교육 수요를 줄여주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을 비판하는 많은 논자들은 이 정책이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교실 수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교원이나 학교의 동기를 저하시킨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대로라면 사교육 수요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교육 당국도 흔히 언명하듯이, 학교 교육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사교육 수요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칠 영향은 복합적인 것으로 보인다. 평준화정책은 지출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요인을 지니고 있는가 하면, 지출을 부추길 요인도 지니고 있다. 실증적인 분석은 이 모순적 요인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줄 수 있다. 많지 않지만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사교육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평준화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보고하고(또는 추론하고) 있다(이주호 홍성창, 2001; Yoon Ha Yoo, 2003; Taejong Kim, 2004). 이 연구들은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우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사교육 수요를 억제한다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에 대하여 억제할 터이다. 고등학생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억제 작용이 표집 자체에서 이미 배제될 수 있다. 그 자료에서는 평준화에 따른 고등학교의 문제(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는 문제)만이 일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Ⅲ. 연구문제와 방법

1. 연구문제

여기 분석은 사교육에 대한 전통적인 가정(假定)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사교육을 좌우하는 일차적인 요인으로 입시 제도를 꼽아 왔다. 입시제도가 경쟁을 격화 또는 완화시키며 사교육 수요를 오르내리게 할 것이라고 가정해왔다. 이런 가정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서인지, 입시제도 변화와 사교육 수요의 관계는 흔히 실증적으로 분석되기보다 사변적으로 정리되어 왔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보면, 이 정책이 경쟁을 완화할 것이고 결국 사교육 수요도 완화할 것이라는 가정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 온 듯하다. 여기서 이 가정을 검증한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석한다.

이 분석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라는 제도를 사교육비와 관련해서 일단 검증해본다는 것 이상의 의의를 지닌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진학 경쟁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관성적인 기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만한 여지가 실지로 있는 것이다.

우선, 평준화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진학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이른바 명문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줄었다. 그런 학교들이 대체로 평준화정책 적용 대상이 될 만큼 비교적 큰 도시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평준화 지역 확대와 더불어 명문의 휘광을 잃고 경쟁의 표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결국 평준화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특정 학교를 겨냥한 진학 경쟁이 일기보다 ‘이웃 학교’에 큰 경쟁 없이 진학하게 되는 양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반면, 평준화정책에 대한 보완의 명분으로 평준화 지역 안에 경쟁 선발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학교들이 생겨나면서, 고등학교 진학 경쟁은 오히려 평준화지역 안에서 치열해지는 경향을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준화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계속 작용할지 의심할 만하다.

일부 선행 연구들이(이주호 홍성창, 2001; Yoon Ha Yoo, 2003; Taejong Kim, 2004) 주장하는 대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교원이나 학교의 열성을 삭감하는 속성을 지녔다면, 이 역시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기보다 부추길 수 있다. 평준화 지역에서 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져 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사교육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평준화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학교에 대한 신뢰감을 유지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오히려 낮출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이 소수 학교를 겨냥한 현상으로 국소적이게 되면서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대학교 진학에 맞추어지고 있다면,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만 작용하는 입시제도로써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사교육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사교육 수요는 고등학교 진학이 아니라 그 이후 전망을 두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추론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사교육 수요에 대해 어떻게 작용할지 단언할 수 없게 만든다. 평준화정책은 사교육 수요를 줄일 듯도 하고 늘릴 듯도 하다. 이런 양방적인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로 여기에서는 실증적인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 ①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영향은 어떤 요인을 반영하는 것인가? 고등학교 진학 경쟁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작용하는가, 아니면 학교 교육의 질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작용하는가?

이 연구는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적용되는 지역과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탐색하고자 한다.

2. 분석 자료와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중학교 3학년 표

집(cohort)에 대한 1~3차년도(2004~2006) 조사 결과이다. 이 자료는 중학교 3학년 때 지출한 월 사교육비 규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1학년과 2학년 때 지출한 사교육비 규모까지 조사해 가지고 있다. 아울러 선행 연구들이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한 가정 배경 요인들을 충실하게 확보하고 있고, 기존 연구에서 동원할 수 없었던 학생 개인의 성취도나 진로 관련 변인들도 확보하고 있다(자세한 것은 한국교육고용패널의 홈페이지 참조).

이와 같이 비교적 충실하게 확보된 변인들을 통제된 후에,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적용되는 지역과 적용되지 않는 지역 사이에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 여기 분석의 초점이다. 학생 개인과 가정의 차이 그리고 학교 소재지역의 차이를 통제하고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적용 여부가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 의의를 지니는지 주목한다. 회귀분석(OLS 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평준화정책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것이다. 이 때 영향력이 의미 있게 나타난다면, 그 영향력이 어떤 요인에 관련되어 있는지 학교 속성을 나타내주는 변인들을 추가로 분석에 투입하며 탐색할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주장들이 실증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평준화정책으로 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 점이 사교육비 지출에 관련되는지 보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기 분석에 동원하는 변인들은 아래와 같다.

가. 종속 변인

월 평균 사교육비(만원 단위)의 자연로그 값('월사교육비LN')이다. 월 평균 사교육비 규모는 가구별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것이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때 각각 조사했다. 세 변인을 개별적으로 취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시도한다. 학년 급에 따라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비교 분석하려고 했다.

나. 독립 변인

1) 학생 개인 변인

중학교 3학년 사교육비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에서는 학생이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할 예정인지 여부('일반계진학예정', 더미 변인)와 전교에서의 석차('전교석차점수', 100-석차백분위)를 개인 특성 변인으로 투입한다. 전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확보한 것이고, 후자는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확보한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런 변인들을 충실하게 고려하지 못했지만, 학생의 학업 능력과 진로 계획은 사교육비 지출에 직접적인 관련을 지닐 것으로 기대한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의 사교육비를 분석하는 모형에서는 능력 수준을 통제하기 위하여 학생 개인 변인으로 여전히 '전교석차점수'를 사용하면서, '일반계진학예정'변인은 '일반계진학더미'변인으로 대체하였다. 고등학교 진학한 후에는 이미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했

는지 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계열 고등학교에 입학했는지는 앞으로 진로 계획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진로 계획은 대학 진학과 결부되므로 사교육비 지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가정 배경

보호자의 학력과 월 평균 소득액(만원 단위)의 자연로그 값을 투입한다. 학력은 일차적으로 아버지(남자 보호자)의 학력을 채택하였고, 아버지 학력이 조사되지 못한 경우에는 어머니(여자 보호자)의 학력을 대신 사용하였다. 무학에서 대학원(박사)까지 1-8점의 값을 가지고 있다. 월 평균 소득액은 가구 전체의 소득을 뜻한다. 두 변인은 모두 가구 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것이다. 아버지 학력은 첫 조사 연도인 중학교 3학년 대상 조사 때 확보된 자료이며, 월 평균 소득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각각 해당 연도에 조사되었다.

3) 학교 소재 지역

서울과 광역시 그리고 행정구역상의 '시'를 각각 더미 변인으로 투입한다. 읍과 면 지역이 기준 변인이다.

4)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적용 지역

평준화 지역을 더미 변인('평준화더미')으로 만들어 투입한다. 평준화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기준 변인)에 대하여 평준화지역이 사교육비 지출에서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게 된다.

5) 학교의 속성

학교의 전체 학생 수의 자연로그 값과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평가 결과를 투입한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적용되는(되지 않는)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나타날 경우('평준화더미'가 통계적 의의를 지니는 경우) 해당 지역의 학교 특징이 그 차이(영향)를 설명해주는지 보기 위하여 투입하는 것이다. 학교 학생 수는 두 가지 속성을 표지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작은 학교가 학교생활에서 익명성을 줄여준다고 가정할 때 학생 수는 학교가 학생들에 대해 긴밀하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 줄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학생 개개인에 대한 배려가 소홀해지기 쉽고,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에 기대기보다 사교육에 기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 학생 수는 학교 크기를 통하여 지역사회 크기를 가리킬 수 있다. 지역사회의 인구통계적 규모는 사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경제규모에 다름 아니다. 그 지역에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즉, 학교 학생 수는 해당 지역의 사교육 기회 양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학교나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그들이 인식하는 학교 교육의 질을 나타낼 것이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에 따르면,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작용은 학교

교육의 질 저하를 통하여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가설이 성립하는지 데이터에 들어 있는 두 가지(교사들이 잘 가르치는지, 나의 진로에 관심을 주는 교사가 있는지 등에 대한) 학생 반응(인식)을 투입하여 탐색할 것이다.

분석에 투입한 변인들의 기본 통계 값들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석에 사용한 변인들의 내용과 기술 통계값

변인 이름	정의(측정)	평균(표준편차; N)		
		중학교 3년	고교 1년	고교 2년
월평균 사교육비ln	월 평균 사교육비(만원 단위, 자연로그 값)	3.06 (1.46; 1946)	2.14 (1.74; 1601)	1.55 (1.81; 1557)
전교석차점수	중3 때 석차점수(100-석차백분위)	51.25 (27.92; 1779)	51.25 (27.92; 1779)	51.25 (27.92; 1779)
일반계고 진학	일반계고교 진학 더미(중3은 예정)	.75 (.44; 2000)	.72 (.45; 1858)	.72 (.45; 1858)
대학진학 계획	대학진학 계획 더미	.91 (.28; 2000)	.86 (.35; 1761)	.87 (.33; 1724)
보호자 학력	아버지 학력 (1-8점)	4.37 (1.25; 1947)	4.37 (1.25; 1947)	4.37 (1.25; 1947)
월소득ln	월평균 소득(만원 단위, 자연로그 값)	5.52 (.69; 1933)	5.35 (.90; 1652)	5.47 (.86; 1568)
서울	서울지역 더미	.20 (.40; 2000)	.20 (.40; 1818)	.19 (.39; 1681)
광역시	광역시 지역 더미	.28 (.45; 2000)	.27 (.45; 1818)	.28 (.45; 1681)
시	시 지역 더미	.41 (.49; 2000)	.32 (.47; 1818)	.34 (.47; 1681)
평준화 지역	평준화 지역 더미	.64 (.48; 2000)	.63 (.48; 1746)	.63 (.48; 1746)
학생수ln	재학 학교 전체 학생수(자연로그 값)	6.59 (.76; 2000)	6.82 (.62; 1746)	6.82 (.62; 1746)
진로 관심 교사 비율	학생 진로에 관심 두는 교사 비율(학교단위 집계)	.52 (.16; 2000)	—	—
교사 수업 평가	국영수 교사 수업 평가(학생인식, 3-15점)	—	10.58 (2.07; 1759)	10.05 (2.04; 1690)

IV. 분석과 논의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할 시기이다. 사교육이 진학 경쟁에 따라 가열된다는 일반적인 가정을 받아들이면, 입시제도가 경쟁을 조성하는 경우에 사교육이 더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평준화정책을 두고 말하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이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사교육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평준화정책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도시(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의 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당락 경쟁이 없는(선발 인원과 지원자 수가 비슷한) 상황인 반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학교 단위 경쟁이 이루어지므로 이른바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치

열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중학교 3학년의 사교육 행위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더욱 번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분석 결과는 이런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 적어도 사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사교육은 평준화정책 적용 지역에서 오히려 더 일어나고 있다. <표 2>는 중학교 3학년 때 사교육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나 진로 계획, 가정 배경, 학교 소재 도시의 크기 등을 통제 한 후에도 학생들은 평준화 적용 지역에서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업 능력과 진학 계획이 비슷하고 가정과 거주 지역의 환경이 비슷한 경우라도, 평준화정책이 적용되는 지역의 중학교 3학년들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비해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중학교 3학년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인	평준화 영향 분석 모형 회귀계수(표준오차)	평준화 영향 설명 모형 회귀계수(표준오차)
상수	-2.875(.250)**	-4.000(.381)**
전교 석차 점수	.003(.001)**	.004(.001)**
일반계고 진학 예정	.345(.078)**	.330(.078)**
대학진학 계획	.297(.116)*	.299(.115)**
보호자 학력	.117(.027)**	.097(.027)**
월소득 ln	.790(.048)**	.772(.048)**
서울	.316(.140)*	.045(.148)
광역시	-.034(.134)	-.338(.145)*
시	.138(.104)	-.170(.120)
평준화 지역	.388(.092)**	.198(.101)†
학생수 ln		.286(.058)**
진로관심 교사 비율		-.387(.184)*
R ²	.310	.321

** P < .01 * P < .05 † P < .10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을 누그러뜨릴 것이라고 보는 일반적인 가정을 부정하는 <표 2> 결과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 대안적인 설명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연구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미 시사했듯이, 고등학교 입학 경쟁이 평준화정책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약할 것이라는 가정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못지않은 경쟁이 평준화정책 적용 지역에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추론이 무리한 것만은 아니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서울과 광역시 등 큰 도시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고, 이런 도시는 '평준화'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특수한 학교들을 적지 않게 갖고 있다. 이 학교들은 경쟁 입학 대상이 되며, 이 때 경쟁은 실지로 범도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쟁이 견인하는 사교육이 풍토 평준화 지역에 충분히 팽배할 수 있다. 비교적 작은 도시라고 하더라도 평준화정책을 적용하는 지역에서는 대체로 인근 시골 지역에서의 진입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경상남도의 평준화정책 적용 지역인 마산, 창원, 진주

등은 각각 하나의 학군으로서 도내 다른 도시나 읍·면 지역 학생의 지원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준화정책 적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비적용 지역과 유사한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두 번째로 가능한 설명은 평준화적용 지역에서 사교육이 더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은 진학 경쟁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이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을 비판해온 학자들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이주호 홍성창, 2001; Kim Taejong, 2004). 평준화정책이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사교육 수요를 키우고 사교육비 지출을 키운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한계가 낡은 결과라고 일축할 수도 있다. <표 2>에 보고한 분석은 가정 배경과 학교 소재지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속성까지 통제하고 있어서 평준화정책의 영향을 비교적 엄밀하게 포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에서 도시와 시골 사이의 차이를 평준화정책이 작용하는 부분만 빼고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조사 자료를 가지고 완전한 통제가 가능한 실증 분석을 해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따라서 평준화정책 적용 지역(즉 상대적으로 큰 도시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평준화정책에 관련된 현상이 아니라, 시골 지역에 비하여 도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특징(예컨대, 더 많은 사교육 기회와 경쟁 분위기 등)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이상 세 가지 대안적인 설명 가운데 주어진 자료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것이다. 평준화정책 적용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큰 것이 그 지역 학교의 질 때문인지 탐색해볼 수 있다. 학교 교육의 질을 나타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평준화정책 변인에 실린 회귀계수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표 2>의 ‘평준화 영향 설명 모형’칸에 정리한 계수들은 바로 이런 시도의 결과이다. 이 시도에서는 두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학교의 크기를 나타내주는 전체 학생수(자연로그) 변인과, 학교에 “나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학교 수준 변인) 변인이다.

분석 결과는 이 두 변인 모두 통계적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작을수록,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학생이 많을수록,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두 변인의 영향이 평준화정책 적용 지역의 영향(사교육비 지출을 높이는 경향)을 상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준화정책 적용 지역의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크고(그래서 학생들에 대해 면밀한 배려가 어렵고), 또한 교사들이 학생 개개인의 진로 등에 관심을 써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이런 인과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더 세밀한 자료와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도한 탐색적인 분석 결과는 평준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지지해주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사교육비 지출에도 평준화정책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3>은 고등학교 1학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중학교 3학년 경우의 분석과 같은 통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평준화정책 적용 지역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준화 영향 분석 모형’ 칸에 정리한 분석 결과를 보면 ‘평준화 지역’의 계수가 정적으로 통계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분석이 통제하고 있는 조건이 같은 경우에, 평준화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비하여 그 정책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학생들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보여준다.

<표 3> 고등학교 1학년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인	평준화 영향 분석 모형 회귀계수(표준오차)	평준화 영향 설명 모형 회귀계수(표준오차)
상수	-3.074(.242)**	-4.125(.545)**
전교 석차 점수	.007(.002)**	.007(.002)**
일반계고 진학	.445(.107)**	.450(.107)**
대학진학 계획	.269(.121)*	.251(.121)*
보호자 학력	.146(.035)**	.145(.035)**
월소득 ln	.573(.047)**	.562(.047)**
서울	.817(.166)**	.721(.171)**
광역시	.367(.159)*	.283(.162)
시	.369(.118)**	.262(.126)*
평준화 지역	.339(.124)**	.259(.128)*
학생수 ln		.199(.077)**
교사 수업 평가		-.009(.018)
R ²	.323	.325

** P < .01 * P < .05

평준화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보이는 결과가 지역별 학교의 특징으로 설명되는지 탐색하는 분석(평준화 영향 설명 모형)에서는 학교의 크기(학생수 변인)가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인식)는 사교육비 지출에 작용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때도 학교 크기의 영향은 평준화적용 지역의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삭감시키고 있다. 학생수(자연로그)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평준화 지역’의 통계적 의의는 의미 있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변화를 단언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앞 장의 ‘분석 자료와 방법’의 절에서 언급한대로, 학교의 크기는 여러 요인을 함축할 수 있다. 익명성이 약화된 공동체 학교로서 학생들을 위한 여러 서비스가 충실한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 학생이 많지 않아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시골 지역 현실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방향을 달리하는 가능성들을 변별할 수 없는 여기 분석에서는 선불리 평준화정책의 영향을 단언할 수 없다. 그렇지만 다양한 통제가 이루어진 최종 모형에서도 평준화 적용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더 큰 경향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소홀히 여길 수는 없을 듯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분석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 지출에 대한 분석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표 4>에서 읽을 수 있는 대로, 평준화정책 적용 지역의 효과가 통계적 의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러서는 사교육비 지출에서 평준화정책 적용 여부에 따른 지역 차이가 사라지고 있다.

〈표 4〉 고등학교 2학년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인	평준화 영향 분석모형 회귀계수(표준오차)	평준화 영향 설명 모형 회귀계수(표준오차)
상수	-3.110(.295)**	-3.005(.624)**
전교 석차 점수	.006(.002)**	.006(.002)**
일반계고 진학	.579(.120)**	.609(.121)**
대학진학 계획	-.002(.144)	.008(.144)
보호자 학력	.131(.039)**	.128(.039)**
월소득 ln	.519(.055)**	.517(.055)**
서울	.744(.197)**	.705(.205)**
광역시	.319(.186)	.295(.193)
시	.467(.140)**	.437(.152)**
평준화 지역	.222(.142)	.213(.145)
학생수 ln		.045(.089)
교사 수업 평가		-.039(.022)†
R ²	.213	.214

** P < .01 * P < .05 † P < .10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교육비 지출이 이전 학년의 사교육비 지출과 다른 경향을 보이는 점을 단순히 자료나 분석이 불안한 이유로 돌릴 수는 없을 듯하다. <표 4>의 결과는 ‘평준화 지역’의 계수가 앞의 결과와 다른 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수긍할 수 있는 통계값들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의 성취도가 우수할수록 그리고 가정이 부유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서울 지역이 사교육비 지출에서 강세를 보이는 점도 보여준다. 이런 현상들은 선행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던 것들이다. 이렇게 보면,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달라지는 사교육비 지출 현상에 대해서 우선 현재의 분석 결과 안에서 설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루어진 분석 결과를 병렬로 비교할 때 두드러지는 것은 뒤로 올수록 ‘서울’과 ‘시’ 지역의 영향력이 뚜렷해진다는 것이다.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이들 지역의 영향은 평준화정책 적용/비적용 지역의 영향과 크게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에서 보면, ‘평준화 지역’이 투입되어 통계적 의의를 확보하게 될 때 서울이나 시의 계수는 통계적 의의를 거의 상실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에 오면 이들 지역과 ‘평준화 지역’의 힘은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태로 양립하고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평준화 지역 변인이 투입되어 그 계수가 통계적 의의를 지닐 때 서울과 시 지역의 계수도 통계적 의의를 유지하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의 분석에 와서는 이 범주 변인의 대치가 역전된다. <표 4>에서 ‘평준화 지역’ 변인이 투입되었을 때에도 서울과 시 지역 변인의 계수는 큰 동요를 보이지 않는다. 지리적 중첩이 크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시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은 평준화 지역이라는 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상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추세는 대학입학을 향한 사교육 행위가 고등학교 2학년 즈음에 이르면 제도나 학교 현실의 영향권을 벗어나 ‘지역’의 ‘바람’을 탄다는 점을 보여주지 않는가 하는 짐작을 하

게 한다. 대학입학을 위한 시험(경쟁)이 목전에 다다른 상태에서는 특정한(평준화정책과 같은) 정책이 조성하는 학교 현실에 관계없이 학교 ‘밖’의 추가적인 기회와 가열 분위기에 휩쓸리게 될지 모른다. 이런 추론이 타당하다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이후의 사교육 행위는 제도적 변화로 총량을 줄이기에 역부족일 것이라고 시사한다. 사교육을 제도적으로 제어하는 일은 대입 경쟁의 시점에서 다소 떨어진 시기에 대해 가능할 것이라는 뜻이 된다.

V. 맺는말

이 연구는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사교육 행위를 억제하기보다 오히려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적어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사교육비 지출은 평준화 적용 지역에서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분석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분석의 통제가 기존 연구들에 비하여 엄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것은 아니다. 평준화정책 적용 지역과 비적용 지역의 비교는 피할 수 없이 도시-시골 지역의 비교와 중첩된다. 도시-시골 지역 사이의 방대하고 복잡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순수하게 평준화정책의 영향만 잡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한계를 전제로, 여기 분석은 현재로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사교육 행위를 억제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시사한다.

좀 개연적이기는 하지만, 이 연구는 또 학년에 따라 사교육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것이라는 점도 시사한다. 대학 입학 경쟁 시점(고등학교 3학년)에 다가갈수록 학교나 제도 요인이 지니는 영향력은 줄어들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기에 이르면 사교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인식되는 듯하다. 사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열기가 가열되는 대로 사교육비가 더 투자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다른 사교육 시장의 크기와 풍토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하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를 엄격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실질적인 자료와 분석이 필요하다. 도시와 시골의 차이를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표집이 필요하고, 지역마다 다른 평준화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구분하여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는 미세한 조사(측정)도 필요하다. 특히 지역(학교 주변 지역) 단위에 사교육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사교육 열기가 어떻게 다른지 등을 고려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연구의 중요한 한계이다.

참고문헌

- 강상진(2005), 평준화 정책 효과의 횡단적 분석, 제8차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 포럼 발표 논문
- 강태중(200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논의의 검토,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정책토론회 발표 논문.
- 강태중, 성기선(2001), 평준화정책과 지적 수월성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KEDI 교육정책 포럼 발표 논문.
- 김기석 외(2005),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김미숙 외(2006), 입시산업의 규모 및 추이분석: 대입정책과 사교육의 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인숙, 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37-149.
- 박기백(1998), 사교육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 재정논집 13(1): 149-163.
- 박미희, 여정성(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89-206.
- 양정선, 김순미(2003),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연구-사교육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5): 221-232.
- 유형선, 윤정혜(1999), 도시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결정요인-일반계 고등학교 과외사교육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59-171.
- 이성림(2005),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63-76.
- 이은우(2004), 사교육비 지출 행위에 대한 경제 분석, 경제연구 22(2): 1-31.
- 이종태 외(2002),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주호(2002),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정책토론회 발표 논문.
- 이주호, 홍성창(2001), 학교 대 과외: 한국 교육의 선택과 형평, 경제학연구 49(1): 37-56.
- 한국교육개발원(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수탁연구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2005), 고교 평준화정책의 적합성 연구, 연구보고서.
- Becker, G.S. and N. Tomes(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s1-s47.*
- Kim, Taejong(2004), Shadow education: School quality and demand for private tutoring in Korea,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Korea.*
- Yoo, Yoon Ha(2003), Competition to enter a better school and private tutoring, KDI School working paper series 03-03.*

Abstract

The study explored the relations of the High School Levelling Policy to the participations of 9th through 11th graders in shadow education. Utilizing the KEEP data, regression analyses are done for the expenditures of private tutoring. To look into the difference in the spending between the policy and the non-policy areas students, controls are don for individual traits and family backgrounds as well as school locations. Analysis results implicate the negative effects of the Levelling Policy. The students in the policy areas tend to spend more money for shadow learning than those in the non-policy areas do. Cautions and further examinations are suggested for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